

자연을 바라보는 두 관점

동양고전철학 & 경제원론

경영학과 김은정

서론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아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원론'과 '동양고전철학'이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볼 것이다. 또한 자연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철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시점에서 자연을 관찰해보고, 두 강의의 시대상을 바꾸어 자연을 바라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동·서양의 자연관을 알아보자.

'경제원론'의 시각에서

'경제원론'은 경제학으로서 희소 자원을 관리하고 연구하며, 사람들이 자원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를 관찰한다. 자연은 자연자원으로서 생산성, 생산요소에 중요한 요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경제학은 15세기부터 구체적인 기틀을 잡았다. 이 시기에는 국가 주도 아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였다.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자연을 도구적인 가치로 간주한 것이다. 그 결과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관리자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중상주의를 거쳐 18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고조되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데카르트는 세상을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로 나누어보는 '이원론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원론에서 자연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죽은 기계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로 구분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정신적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원론적 시각은 인간이 자연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정당화하였다. 당시 데카르트의 시각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었다.



Rene Descartes(1596~1650)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에서

'동양고전철학'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동양의 고전에서 인생은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가 인생이라 생각한다. 동양 사람들의 인생관 속에 자연철학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을 조화의 관계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상은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된 노자의 도가사상이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러므로 있고 없는 것이 서로 놓고,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루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모방하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지고, 음과 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루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이로써 성인은 무위의 일에 처하여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도덕경 2장)

“사람은 땅에 이르고 땅은 하늘에 이르고 하늘은 도에 따르고 도는 자연에 따른다.” (도덕경 25장)

위의 구절을 통해 반대되는 개념들은 상대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 대립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양쪽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는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자연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위적인 인간의 욕구와 쟁집의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였다.



老子(기원전571~531 추정)

동·서양의 시각에서

'경제원론'과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을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점이라 해석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굳혀졌기에 서양의 시각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동양고전철학은 동양의 고전 철학자들의 사상을 논하기에 동양의 시각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시각에는 시대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경제원론의 시각은 15-18세기로 중세와 근대를 아우르는 시대이며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은 기원전 5세기로 고대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상응하는 시대로 시각을 옮겨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원론'의 관점을 15세기에서 동양 고전철학의 배경인 고대로 가져가 보고자 한다. 고대 서양의 경제사상은 '경제원론'의 경제 사상과 달리 당위적이고 규범적이었다. 사람들은 개인의 부가가치와 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 이렇듯 과도한 부를 추구하지 않는 사상은 자연에도 적용되었다. 고대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만 자연을 이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연을 경외시하며 자연과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양의 고대 자연관은 중세, 근대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시각이 존재했다.

다음으로 '동양고전철학'의 관점을 고대에서 경제원론의 배경인 근대로 가져가 보고자 한다.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근대에는 동양에서도 경제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범적인 경제논리가 우세했다. 때문에 서양의 경제 사상처럼 체계적인 경제사상이 자리 잡힐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연을 생산성이나 생산요소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힐 수 없었던 것이다. 단지 자연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이처럼 동양의 근대 자연관은 고대의 사상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결론

'경제원론'의 시각에서 자연은 15세기부터 인간에 의해서 인식되고 정복되며 이용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반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관리자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경제원론'의 배경을 고대로 바꾸었을 때 매우 달라졌다. 서양의 고대인들은 자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연은 관조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경제원론의 시각에서는 시대에 따라 자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경제원론의 시각이 서양의 자연관점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에서 고대의 자연은 신성한 절대 존재였다.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이 아닌 조화를 중시했다.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과 흐름을 맞추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동양고전철학'의 배경을 근대로 바꾸었을 때에도 크게 변화한 점이 없었다. 이처럼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에서는 시대와 무관하게 자연에 대한 관점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동양고전철학의 시각이 동양의 자연관점이라 말할 수 있다.